

광주빛그린산단, 미래형 후산업 메카 '우뚝'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3030억 들여 내년까지 구축 부품인증센터 7월 준공...글로벌모터스공장 9월 양산체제

광주 빛그린산단이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친환경차부품인증센터, 무인 자율주행 비대면 서비스 실용화, 완성차공장 등 친환경차와 무인 자율주행 실증 등 자동차산업 일관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미래 자동차산업의 이글 선도시역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친환경차부품클러스터는 지역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와 연관된 전장부품 기술 등을 융합 발전시키는 자동차 부품산업 구조 고도화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30억원을 투입해 빛그린산단에 구축 중이다.

빛그린산단 연구용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만906㎡ 규모의 선도시역지원센터와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889㎡ 규모의 글로벌모터스

센터가 건립되고 있다.

선도시역지원센터는 179종의 기술개발 장비를 구축해 부품기업 수요에 맞춰 친환경·스마트 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미래차 기술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글로벌모터스센터는 기업간 교류의 장으로 창업보육, 사업다각화, 해외마케팅, 인력양성 지원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친환경자동차 선도시역 조성을 위해 빛그린산단에 구축 중인 전국 유일의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도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는 급증하는 친환경자동차 인증수요와 사후관리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인증 및 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 국가기관이다. 인증센터 건립공사는 지상 2층 규모로 지난해 8월 착공해 총

돌시합동, 충격시험동, 배터리시험동 등 3개 동을 구축 중에 있다. 건물이 완공되면 곧바로 각종 인증·평가 장비의 구축 작업에 들어간다.

인증·평가 장비는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평가 장비 7종, 충돌 안전성 평가 장비 7종, 충격 안전성 평가 8종, 화재재현장비 및 법적 부대장비 4종 등 총 26종이며 2022년까지 구축을 완료한다. 인증센터는 7월 센터가 준공되고 이후 장비 구축이 완료되면 9월 배터리시험동을 시작으로 충돌 및 충격시험실 등을 순차 운영한다. 시는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가 들어서면 향후 광주지역 친환경 자동차업체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빛그린산단에 건설 중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 공장도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간다. 공장에선 일단 내연 SUV 경차를 생산하며, 자동차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친환경 자율주행차 생산으로 공장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 돼 있다. 빛그린산단에는 또 최근

무인자율주행 기술의 언택트 서비스 실용화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도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410억원을 투입해 헬스케어, 무인점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무인자율주행 셔틀활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내용이다.

이미 광주에선 전국 최초로 지난 17일부터 무인 저속특정차는 시속 5km 이하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하며 청소, 폐기물수거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저속특정차 자율주행이 시작했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과장은 "친환경과 자율주행 중심의 미래형 자동차산업은 인공지능산업과 함께 광주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분야"라면서 "빛그린산단은 부품-인증-완성차공장에 이르는 일관체계가 구축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공모 1개 컨소시엄 신청

광주 광산구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자 공모에 1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마감한 사업자 공모에 8개 업체로 결성된 1개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시는 다음 달 3일 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서가 공모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면 협상을 거쳐 사업협약을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위주 개발 방식, 친환경 정주 요건 조성 등 친환경 개발 방향을 명시한 공모 지침을 마련하고 공모를 냈다.

시는 1998년 준공업 지역 지정 후 개발 요구가 지속된 평동 준공업 지역 일대를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미래 전략 산업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초 17개 업체가 의향을 보였으며, 이 중 일부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신청했다"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법인 설립 등 절차를 거쳐 내년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의회, 지방자치 우수조례 단체 우수, 개인 우수상·장려상

광주시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7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 우수상·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수상한 단체부문 우수상은 신수정·정무장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선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우수상은 김익주 시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로,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제정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정비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김용집 의장이 발의한 조례다. 한편, 이번 우수조례상은 지방자치의 정책역량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0여개 광역·기초 의회의 의원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최권일 기자 cki@



김영록(가운데) 전남지사와 김정수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지난 19일 오전 차세대 드론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고흥군 고흥읍 고흥항공센터 방문, 드론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육군, '차세대 드론산업' 협력체계 구축

전남도-제2작전사령부 협약

전남도가 '차세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육군, 전남테크노파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한항공항공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관련 기관 및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전남도, 제2작전사령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향후 업무협약 체

결을 통해 실증사업 협력, 공동기술 개발, 재정지원 사업 추진 등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21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정수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지난 19일 고흥항공센터를 방문해 '차세대 드론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센터 방문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차

세대 드론 산업을 육성중인 전남도와 급변한 안보 환경에 맞춰 스마트 국방혁신 프로젝트 '스마트 무인력'을 추진중인 제2작전사령부의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이뤄졌다.

행사에는 송기군 고흥군수, 최순건 제31사단장,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김중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센터장, 공병호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 등도 참석했다.

전남과 육군의 드론산업 공동협력 추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국가중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과 전남도 차

세대 드론산업 추진현황 설명에 이어 대한항공 등 4개 기업의 군 임무수행에 맞는 기체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정찰을 위한 장기체공 및 최장거리 이동(대한항공, KUS-HD) ▲원거리 정찰임무 수행과 실시간 영상송출(남다, M600-Industry) ▲화생방 탐지 및 무인기 물자수송(에스엠프트, SE-20) ▲군 훈련지 방역(천풍, M20) 등 국내 드론의 높은 기술력을 선보여 군 관계자의 눈길을 끌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피의자 신분 직원들 승진 후보 광주환경공단 인사 '논란'

광주환경공단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을 승진 후보자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승진 인사가 진행 중인 공단에 '피의자 신분인 직원은 인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일부 직원이 승진 후보 3배수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는 인사를 연기하고 공단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달라고 했다. 공단은 시, 노조 등의 의견에 따라 당초 이달 초로 예정된 인사를 이달 말로 연기했다. 피의자 신분인 직원들은 그대로 승진 후보 명단에 포함됐으며, 공단은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인 직원이 승진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다시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면서도 "아직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고 결론이 난 것도 아니어서 그 이상의 조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환경공단측도 업무 추진, 후속 인사 등 때문에 승진 인사를 타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무죄가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공단측의 주장이다. 공단측은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 등 3명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